

【연구논문】

거대 부산 전략 시론(試論)

김 덕 삼*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거대 부산 전략의 수립 |
| II. 지정학적 위치로 본 부산 | 1. 부산의 특징에 입각한 개발 |
| III. 시간적 변화로 본 부산 | 2. 주변과의 조화를 통한 개발 |
| | V.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부산의 새 전략으로서 거대 부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을 작은 부산으로 규정지으려 하지 말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큰부산, 대부산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지정학적 위치와 시간적 변화로 구분하여 부산을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하여 미래 발전 모델로서 거대 부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부산 발전에 대한 대내외적 위기와 다른 도시와 비교 등을 통해 부산의 위기감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도시처럼 부산의 발전은 지정학적, 시간적 변화 속에 부산 자체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보다, 지정학적 위치와 시간적 변화가 가져다준 특혜 등에 힘입어 이루어진 점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부산의 새로운 전략은 트렌드나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장기적 기반 위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대내외적인

*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변화의 시점에서 부산은 과거와 달리 수동적이고 피동적 자세가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산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주변과의 조화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루어진 거대 부산 전략을 제시하였다. 거대 부산 전략에 있어 주목되는 점은 첫째, 앞서 살핀 것과 같은 부산의 지정학적·역사적 이점과 특징을 기초로 부산만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부산이 해양성, 개방성, 저항성이라는 부산의 특징을 기초로 주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주변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를 조화시켜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제 전략적으로 부산은 두 가지 정책을 함께 준비해서 실행해야 한다. 소부산 전략과 대부산 전략이다. 소부산 전략에서는 기존의 전략에 더하여 부산만의 장점과 정체성을 배가시킬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산 전략에서는 주변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으로써 부산의 존재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방안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핵심주제어 : 부산, 문화, 지정학, 주체성, 거대 부산

I. 들어가며

세방화로 번역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은 지방도시를 포함한 한 도시의 성장에 있어 아직도 유효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의 유구한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해 온 도시들은 늘 한 시대와 한 지역의 대표성을 실현하며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왔다. 서구의 고대 도시국가들로부터 오늘날 작지만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르는 도시들은 모두 자신의 특징을 살리며 시대를 대표했다.

항도부산 또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부산

시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성공과 서울을 능가한 국제회의 개최 도시 곧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vents & Exhibition) 도시로서의 전환에 힘입어 새로운 도시 전략에 연착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엄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의 가시적인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²⁾ 중국과 일본의 견제 및 국내 다른 도시와의 경쟁도 치열하다는 점, 그리고 경쟁 도시와 비교해서 부산은 제조업이나 기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 부산의 새 전략으로 도입해 보려는 것은 거대 부산 전략이다. 다분히 초탐적(初探的) 성격을 갖기에 구체성과 근거가 충분히 구비되지 못했다. 하지만 본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본고의 목적을 거대 부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둔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공간적·시간적 구분 속에 진행된 부산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지정학적 위치와 시간적 변화로 구분하여 진급하였다. 부산의 발전은 지정학적, 시간적 변화 속에 부산 자체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보다 지정학적 위치와 시간적 변화가 가져다준 특혜 등에 힘입어 이루어진 점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³⁾ 그러므로 지금 대내외적인 변화의 시점에서 부산은 과거와 달리 수동적이고 피동적 자세가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

1) 부산광역시, 『부산발전 50년 역사이야기』 상권, 부산출판사, 2013, 79~80쪽.

2) 김영표, 『부산관광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현안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2006, 95~103쪽. 아셈, 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투자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3) 인정하기 쉽지 않은 지적이다. 그러나 많은 도시가 그랬다. 한국의 인천, 제주 등이 이와 같고 중국의 상해도 이와 같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 이러할 때 그 도시의 발전은 비약하고 쇠퇴는 더디게 된다.

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산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중 하나가 시대적 변화를 읽고 사고의 전환을 하는 가운데 만들 수 있는 거대 부산 전략이다. 부산은 외국의 다른 도시나 한국의 수도 서울과 달리 구심력이 부족하기에 ‘자신의 특징’을 토대로 ‘주변과의 조화’를 통한 전략으로 가야 한다. 다시 말해 부산을 작은 부산으로 규정지으려 하지 말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큰 부산, 대부산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미증유의 공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해결불능의 위기를 일으켰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부산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산의 문화는 작은 부산의 것만을 바탕으로 했기에 미래의 발전 전략에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부산의 문화는 다른 문화를 종합하는 능력이 장점이다. 주변의 문화를 아우르는 능력을 확장하여 미래로 세계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II. 지정학적 위치로 본 부산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는 오늘날 해양 국제회의 도시로 알려지기 전부터 그 가치가 컸다. 가야시대로부터 시작되는 부산의 국제성은 고려시대 잠시 미비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내려왔다.⁴⁾ 태평양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시발점이 되고 대륙에서 보면 해양 진출의 시작이 된다. 일본이 서양문물을 대표해 동양으로 진출할 때는 터키의 이스탄불과 동서양의 경계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미국·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의 접점이 된다. 이처럼 부산의 거시적 지형은 지정학적으로 볼

4) 김해시·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세아』, 주류성출판사, 2012.

때,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육지의 끝, 아시아 대륙에서는 아시아의 끝, 한반도에서는 땅 끝이 되고, 지형학적으로는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만나는 장소이다.

환경결정론(環境決定論, environmental determinism)자의 주장을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나 사회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작게 보면 부산은 바다와 산으로 연결된 넓지 않은 땅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부산은 대륙의 끝이자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출구이기도 하다. 부산은 새로운 문물의 수입과 수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여 배출하는 재창조의 장소이기도 했다.

부산은 백두대간에서 태백산맥으로 뻗어내려 낙동정맥으로 이어진 동남단의 끝부분인 금정산의 높은 지형과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이중의 구조 때문에 평지가 거의 드물다. 이러한 것들과 어우러진 산복도로와 그 많은 골목길도 넓은 바다와 대조되면서 부산의 문화와 부산 사람들의 정서를 만들었다. 부산의 자연적 환경과 어울려 부산만의 문화적 소재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해운대, 향도, 바다, 영도다리, 해안도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골목길, 임진왜란, 부산국제영화제, 초량 이바구길, 감천문화마을 등이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 요인과 관련되어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 로케이션 영화의 성공과 맞물리면서 부산 로케이션 영화의 지형적 특성이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을 특징짓는 지형은 산복도로와 골목길, 판잣집으로 대표되는 해안지방 중 높은 산악지형 그리고 리아스식 해안의 절경과 깊은 수심으로 대표되는 바다와 낙동강 등이다.

여기에 더하여 부산 사투리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는데 부산 사투리의 유행은 부산 문화의 입장에서는 양가적인 가치를 가졌다. 옛날 정복창은 지형지세만 보고도 그 나라의 말을 알아냈다고 했다. 이처럼 사투리의 특징은 지형과 연관이 깊다.

부산 사투리는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도 특이하고 경상도 해안지방 사투리와도 다른 점이 있다. 부산 사투리의 특징은 일반 경상도 사투리보다 축약이 더 많고 장음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⁵⁾

반면에 지나치게 조급한 성공 열망으로 부산 로케이션 영화의 인물들은 오리엔탈리즘과 같이 세련되지 못한 인물들과 억센 사투리로 도식화하여 로컬리티의 식민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⁶⁾

항도부산의 미래 설계에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것은 부산의 모든 결정에 지정학적 위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산은 한국사에서 그리고 문화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위치가 가져다준 특혜의 효과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세계의 많은 물산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중국의 열악한 항만시설과 조건으로 인해 부산항이 각광을 받았다. 깊은 수심과 좋은 조건의 항만시설은 대형 컨테이너선의 화물을 작은 배에 실어 중국으로 옮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제 부산을 거치지 않는다. 바로 중국으로 향한다. 이미 중국의 항구가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다. 도시간의 경쟁도 이와 같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수동적이고 안일한 자세로는 오늘날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

대내적으로는 부산만의 것을 주장하다가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악화되기도 했다. 정치적 이슈에서도, 경제적 이슈에서도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선정에 있어서도 주변지역과 마찰을 일으켰다.⁷⁾ 이것은 부산을 행정구역상의 부산으로 좁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변지역과 손을 맞잡고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부산이 살고 주변지역

5) 남송우, 『부산지역문화론』, 해성, 2013, 46~52쪽.

6) 최용성, 『부산 로케이션 영화와 탈식민성의 로컬문화윤리』, 『한국민족문화』, 4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427~467쪽.

7)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경남·대구·경북·울산과 부산시가 각각 입장을 보이고 있다.(『경남신문』, 2014년 10월 2일자)

이 산다. 과거의 좁은 지역 개념에 얽매어 봉정만리(鵬程萬里)의 날개를 더 넓게 펴지 못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일이다.

또한 부산이 항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산의 성공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다. 4대강국의 의도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부산의 성공도 한국의 성공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의 변화가 시시각각 다르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제 부산은 협의적 의미의 부산에 머물지 말고,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발전해나갈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예를 들어 이런 의미에서 이웃하는 중국의 상해는 부산에게 지정학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면이 많다. 상해는 면적이 6,341km² 16구 1현, 2013년 말 기준으로 인구 24,150,000명의 도시다. 반면에 부산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면적이 769.82km²이며, 15구 1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는 3,562,469명이다. 부산과 상해는 면적과 인구에서 대략 8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규모면에서 부산을 압도하는 상해도 상해만으로 존립하지 않는다. 상해는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뚜렷하고, 경제적 역할이 분명히 구분된다. 항주와 소주를 비롯하여 양자강을 통하는 지역이 상해로 결집되고, 이는 상해를 이 지역의 대표 도시로 만들고 있다. 특히, 상해는 화동지방의 교통 중추로서 도로, 철도, 항만, 항공의 도시로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상해가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것은 상해만을 염두에 둔 사고에서가 아니라 주변지역을 아우르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한 구조적 재편 속에 가능했다. 물론 그 원인으로는 상해의 조차지로서의 역사처럼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국제 관계,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지정학적 위치와 우연적 상황 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참고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역학관계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은 행정적으로 구분되어진 지도상의 부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작은 부산에 머물면 머물수록 부산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면적과 인구도 절대적으로 작고 적기에 한계가 있다.⁸⁾ 게다가 세련되지 못한 정체성으로 일관하는 것은 내부 식민지로서의 종속

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⁹⁾ 이제 과거의 광휘와 부산만의 좁은 시각을 버리고 더 큰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공간의 영향은 실로 크다. 현재의 서울도 그 크기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많이 넓어졌다. 그런데 그냥 넓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이 있다. 즉 45분 규칙. 도심의 팽창은 변두리에서 도심까지 4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동수단의 발달에 따라 공간이 축소되고, 공간의 축소는 이동수단의 발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부산도 다분히 그렇다. 아니 부산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경계가 그렇고, 북극과 남극 개발을 두고 국력을 다투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교통이 더 발달하면 우주의 공간까지 이러한 틀이 적용될 것이다. 그럼, 결론은 뻔하다. 좀더 일찍 공간개념을 가지라는 것이다. 좁은 틀의 부산에 갇혀 과거의 영화를 회상하며, 쇠국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관습과 습관의 경계를 허물고 거대 부산으로의 공간적 영토를 확장하라는 것이다.

중국의 주은래 총리도 언급했다지만 북경은 오래전부터 천진과 연결하는 거대 도시를 구상해왔다. 북경에 바다가 없어 바다를 통한 진출과 유입이 늘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통의 발달로 북경과 천

8) 물론, 모두 메가시티가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메가시티는 인구가 천만명 정도는 된다. 부산이 거대 부산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9) 최용성, 『앞의 논문』, 2013.

10) 김덕삼, 『문수창 :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79쪽. 일명 45분 규칙인데, 트래펄은 중심에서 변두리까지 가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릴 때까지만 도시가 커나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일하러 가거나 장 보러 가는 데 45분 이상 걸리는 거리면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트래펄은 바그다드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했다. 1800년대 런던의 반경은 5km로, 이는 당시 주요 이동수단인 걷기에 기인한다. 반경 5km 정도가 걸어서 45분 정도의 활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10배 이상 넓어진 오늘날의 도시는 주요 이동수단인 자동차로 45분 정도 걸린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외곽에서 도심까지 지하철로 45분 정도 걸린다.

진이 하나의 도시로 합쳐지는 것도 상상만은 아니다.

이제 부산은 대구와 진주뿐만 아니라 역사도시 경주와 안동을 아우르고, 산업도시 울산과 창원을 포함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이 깃든 남해안과 동해안을 아우르는 거점으로서의 거대 부산으로 웅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 기초위에 큰 그릇으로 거둬나야 한다. 작게는 경상도를 아우르는 부산으로, 좀 더 크게는 한반도 이남을 대표하는 부산으로, 더 나아가 반도를 대표하고, 대륙과 해양문화를 이어주는 중추도시로서 스스로의 역할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

Ⅲ. 시간적 변화로 본 부산

부산은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최초의 격전지로서 부산과 동래가 널리 알려졌다. 부산의 인물 가운데 부산 출신은 관노 출신의 장영실과 어부였던 안용복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산이 배출한 인물이 아니라 부산에 부임하였던 목민관이었다. 이는 동래(부산 포함)에 문과급제자가 1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하듯이, 부산은 조선조 성리학의 학문적 분위기에서는 소외되었던 변방이었음 말해준다.¹¹⁾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유명한 인물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결국, 이것은 부산은 근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한 도시라는 것을 입증한다.

1876년 「병자수호조규(강화도조약)」 이후 부산은 국제무역항로 최초의 개항장이 되었다. 1895년에 동래부(東萊府)가 설치되었다. 부산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계기는 바로 근대 개항 때 문이다. 조선시대에 항구나 역은 정제되지 않은 혼돈의 공간, 속된 공간이므로 철저하게 변방으로 인지되었다. 하지만 개항으로 세계자본

11) 송정숙, 「부산의 기억과 로컬리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2, 351~352쪽.

주의에 편입된 이후, 특히 개항장이 된 부산은 국외의 새로운 자본과 문물이 들어오는 곳이었고,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땅이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의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외국과 소통할 수 있는 부산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힘을 조선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부산을 가파르게 변모시켰다¹²⁾

앞서 언급했던 상해도 부산과 비슷한 역사를 지녔다. 상해의 역사를 보면, 상해가 오래전부터 거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상해는 1842년에 맺은 「남경조약」에 따라 1843년에 정식으로 개항하면서 외국 자본과 무역,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기창양행(旗昌洋行), 이화양행(怡和洋行) 등의 무역회사와 HSBC 같은 금융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청일전쟁이 일어난 1895년 이후에는 외국 자본에 의해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도 발전을 이루었다. 상해의 발전은 국내의 요구에 따른 화계(華界)와 서구의 침략에 의해 발전한 조계(租界)로 구분이 되고, 조계가 상해의 발전과 국제화를 추동하였다.

부산은 지정학적 위치가 선사하는 혜택과 이에 따른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하게 되었다. 부산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 전후이다. 부산은 일본의 지형과 같이 산이 높기도 하고 바다가 있기도 해서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지 일제강점기 당시 실제로 가장 큰 신사는 용두산공원에 있었던 용두산신사라고 한다. 부산은 3.1운동에서 가장 먼저 여학교가 동원된 곳이기도 하다. 동래여고의 전신인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의열단의 김원봉 보다 더 유명한 김원봉의 처(박차정)가 다닌 학교라고 한다.

부산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의 선봉지가 된 것도 일본의 수탈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산에는 일본 최고의 수산물왕 선박왕이 있었다. 그리고 부산은 일본인들의 휴양지이자 별장지이기도 했다. 유황온천으

12) 송정숙, 「앞의 논문」, 2012, 344~345쪽.

로 유명한 동래는 온천장이 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했다.

부산이 오늘날 결정적으로 더 커진 것은 부산이 한국전쟁 중 임시 수도였다는 점이다. 부산은 잠시 한국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고 휴전 후에도 북한의 많은 인재들이 남은 곳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휴전선은 한국의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을 불렀다. 북방과의 왕래가 멀어지고, 오랫동안 문화적 경제관계를 유지했던 중국과도 교류를 끊게 되었다. 한국은 일본과 미국으로 교역을 늘리고, 그 통로로서 부산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리고 1963년에 정부 직할시로 승격하여 국제교역과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였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수입과 수출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항도로 출발한 부산의 특성상 부산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타지 사람들이 모이기 쉬웠다. 게다가 문화적 정체성도 뚜렷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아 융합과 복합의 문화적 성격을 갖는다. 과거 교통의 요지는 주요 도시 변두리 주변에 위치하여 주요 도시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대 이후 도시의 발달은 교통의 편리성 및 효율성과 함께 발달한다. 그 속에서 부산은 단순한 항도에서 제2의 도시로서 기능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문화적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부산은 교통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의 중심에 있었다. 현대 한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권력의 힘과 부산은 깊은 관련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현대 한국을 이끄는 삼성, LG, 롯데도 부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¹³⁾ 또한 문화적으로도 부산은 일본과 미국 문화의 수입통로이자 수입된 것을 한국적으로 토착화하는 전환의 통로이기도 했다.

부산의 화려함도 지정학적, 시대적 변화와 관련되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고, 이는 부산의 위기를 불러왔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포

13)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13, 161~173쪽.

함하여 중국과의 왕래 개시를 포함한 북방으로의 진출, 일본의 침체와 정서적 부담감,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인한 부산의 역할 감소를 비롯하여,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과 경기도권의 부상,¹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도시의 발전이라는 요인까지 부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부산의 위상이 과거만 못하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정학적 시대적 상황 속에 반사이익으로서 부산이 성장했다면, 이제 스스로가 만든 환경 속에 자주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고 오래가는 발전이다.

그러하다면, 시간과 공간의 영향 속에 오랜 습관에서 오는 경로의 존성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이제 시간과 공간의 익숙함, 그리고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안일함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나은 길인지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깨트리기 힘든 것이 공간과 시간에 길들여진 익숙함이다. 이제 거대 부산 전략으로 주변과 함께 공존공생의 전략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와 상대해야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때, 궁지에 다다르게 되어 억지로 변하게 되면 늦는다.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IV. 거대 부산 전략의 수립

1. 부산의 특징에 입각한 개발

주체에 대한 자각은 외부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발

14) 시도별 이동자수에 대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감소지역으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전남·경북 등이다. 반면, 증가지역은 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 등이다.(통계청 자료, <http://kosis.kr/statisticsList>) 이를 근거로 도시간의 관계와 도시의 발전 전망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과거와 달리 인천·세종·제주·충청권이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을 이끄는 주요 요소다. 부산의 특징은 해양성과 개방성에 근거한 다양한 문화의 수용에 있다. 여기에 주체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을 발전시킨다면 더 큰 힘으로 발휘될 것이다. 『장자(莊子)』 천운(天運)편에 서시빈목(西施瞶目)이라는 말이 나온다. 중국 최고의 미인 서시가 속병이 있어 미간을 찌푸리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이웃 나라 추녀가 그것을 그대로 모방했다가 그 모습이 너무 흉하여 사람들이 모두 피했다는 이야기다.

이 고사는 어떤 면에서 『손자병법(孫子兵法)』 모공(謨功)편에 나오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百戰不殆)”는 말과 통한다. 무언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상대방에 대한 파악에만 골몰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파악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체성 확립에 기초가 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를 어떻게 엮어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의 양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창조하는 주체 자신이다.¹⁵⁾

주체적 수용이나 주체성 자체가 부산의 문화적 특징인 것은 아니다. 거대 부산을 위해서는 주체성을 중심으로 부산의 특징이 발굴 개발되어야 한다. 문화 연구에서 주체적 수용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문화의 주체적 수용과 관련된 부산 문화 연구를 찾아보면, 첫 째는 지역성 연구의 문화적 전환, 둘 째는 주체성 연구, 셋 째는 개별문화에의 적용을 들 수 있다.

15) 김덕삼, 『앞의 책』, 2013, 323쪽. 결국 주체적 수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외부의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주체적 수용의 조건은 먼저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것에서 출발한다. 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나, 여기, 지금’이어야 하고, 그 과정은 과학적·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한다.(217쪽)

첫째, 지역문화 연구의 중심이동을 살펴보면, 로컬리티의 연구에 대한 문화적 전환¹⁶⁾을 들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기점으로 이제 부산은 산업의 모멘텀을 영화와 국제회의 등 문화로 잡았다. 부산은 타 도시에 비해 유리한 규모의 경제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문화로의 이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가 일종의 모방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창조가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부산 문화의 창조 스타일에는 논의가 부족하다. 부산은 다양한 문화요소가 있어 기존의 이론적 틀로는 수용되지 않는다.

둘째, 주체성 연구를 살펴보면, 건축 등에서 발견되는 부산문화의 무한중첩구조 등을 들 수 있다.¹⁷⁾ 부산문화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방성, 해양성, 저항성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성격은 다시 순환이라는 특징 하나로 집약될 수 있다고 한다.¹⁸⁾ 부산이 지향해야 할 순환은 무한 중첩하는 원과 같이 작은 공동체가 큰 공동체까지 중개없이 바로 소통하는 순환이다.

셋째, 개별문화에의 적용사례를 보면, 문화마을의 성공요인분석¹⁹⁾, 부산의 고전문학 연구²⁰⁾ 등을 들 수 있다. 부산이 자기의 문화정체성을 찾아 시행한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부산은 좀 더 과감한 문화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보다 실천적인 각도에서 언급하자면 첫째, 주체성은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으로 고안하고 추진하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둘

16) 홍성민, 『문화, 로컬리티, 주체형성』 -21세기 인문학의 방향모색-, 『로컬리티 인문학』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275~307쪽.

17) 양주영, 이우환, 김기환, 『부산지역 문화시설의 ‘주름’사유 경향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회, 대한건축학회지회 연합회, 2010, 27~30쪽.

18) 남송우, 『앞의 책』, 2013, 129~136쪽.

19) 김창수, 『도시마을 창조전략: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 재생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 한국비교정부학회, 2012, 221~246쪽.

20) 정경주, 『부산지역 고전문학의 창작 배경에 대하여』, 『석당논총』 5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1~32쪽.

째, 지역성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역사나 풍토를 시책 속에 가능한 한 강렬하게 반영시키는 것이다. 특히 역사나 전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사업이 중요하다. 셋째, 인간성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공감을 불러 일으켜 함께 하고 싶은 감정을 주는 배려이다. 인간성이 깃들인 지역이야말로 혼 혼함이 감도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넷째, 창조성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다. 타 지역이 하지 않거나,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창조성은 시민감각과 과학적 기술력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각 지방정부들이 지역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가미하려면 이상의 네 가지 지역문화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²¹⁾

부산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특징으로 해양성, 개방성, 저항성을 얘기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항만을 갖춘 부산은 대항해 시대의 선두로서 해양성을 지니고 있다.²²⁾ 이를 바탕으로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성격에 따라 개방성을 지니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산과 바다, 좁은 땅에 많은 골목길로 만들어진 부산의 지리적 특성은 부산의 저항성을 키우기에 좋았다.²³⁾ 해양성, 개방성, 저항성은 기존의 부산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부산의 특징이다.

21) 이종수, 『부산 골목문화자산 스토리텔링 마케팅』,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2011, 57쪽.

22) 부산은 해양과 접해 있지만 개발방식은 해운대, 광안리 등 지역의 관광해양성과 북항, 남항, 신항 등 지역의 항만물류해양성, 신평과 하단지역의 산업해양성, 강서와 서부산지역의 물류해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남광역권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거대 부산 전략과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하위단위의 세부적인 연구는 다음 연구에서 심화시키도록 하겠다.

23) 野都에서 與都로 바뀌고, 개방성으로 인하여 다양성과 이질성을 지닌 현재 부산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항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진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산이 지닌 저항성이 곳곳에 遺傳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부산의 지정학적, 시대적 산물이다. 이러한 특징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청관거리’로 불리는 부산의 차이나타운이다. 이곳은 청국의 영사관이 1884년에 자리 잡으면서 생겨났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다문화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부산은 여러 기회를 놓쳐왔기에 대륙문화도 해양문화도 아닌 정체성 없는 문화가 형성되었다.²⁴⁾ 게다가 부산은 국외 경쟁자인 상하이나 홍콩·오사카 등과 비교해볼 때 특징적인 문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안동·경주·인천·경기 등과 비교해서도 고유문화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부산 문화와 관련하여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²⁵⁾ 부산의 인물과 문화재도 복원되고 있으며,²⁶⁾ 부산의 민속학도 모습을 찾고 있다.²⁷⁾ 그렇다면 여기에 더하여 의도적으로 학습된 주체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부산문화 연구에서는 부산의 지정학적·시대적 탁월성은 오히려 부산문화의 정체성 부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2. 주변과의 조화를 통한 개발

부산은 근대 개항장, 한국전쟁기 임시정부, 산업화의 거대 항구라는 조건 때문에 한국의 제2도시가 된 바 있다. 또 중국의 부상, 산

24) 남송우, 『앞의 책』, 2013, 57~60쪽.

25) 김재송, 「영도구의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대외위 연계」, 『지방포럼』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74~75쪽.

26) 송정숙, 「부산의 기억과 로컬리티」 -〈부산의 인물〉과 〈부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2, 343~364쪽.

27) 김승찬, 「부산지역 민속학의 현황과 미래」, 『한국민족문화』 2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231~257쪽.

업의 중공업화와 IT화라는 또 다른 조건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산은 최근 부산이 당면한 구조적 난관을 파악하고 부산국제영화제, 감천문화마을 조성, 부산 해양레저 도시화라는 새로운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많은 연구진들의 노력에 의해 부산은 스스로의 문화를 개방성, 해양성, 저항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한 모델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것도 있다. 그러나 부산의 새로운 전략은 트렌드의 변화, 중국의 부상 등으로 늘 불안한 특성을 나타낸다.

부산의 새로운 전략을 트렌드나 환경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 장기적 기반 위에 구축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부산 발전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 주변과의 조화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루어진 거대 부산 전략이다. 이때, 넓은 대륙적 사고와 진취적인 해양적 사고를 가지고 크고 넓게 생각해야 한다. 그게 바로 부산의 주체성이다.

소부산만을 생각하는 것은 부산을 더욱 더 미궁에 빠지게 할 것이다. 도시의 변화에 앞서 세상과 시대의 변화를 생각해야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이제 10개월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바뀐 오늘날이다. 이런 점에서 10년 전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데 기차로 5시간 걸리던 것이, KTX 고속열차로 2시간대로 줄어든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 앞으로 공간의 축약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할 때 과거 부산의 지역적 제한은 부산의 발전에 미래적 제한이 되지 못한다. 교통과 통신이 이미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주변과의 상생적 관계 개선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협조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미, 서울은 인천과 경기도를 아우르고 강원도 춘천과 충청이북까지 아우르며 그 영향권을 확장했다. 머지않아 세종시를 거쳐 충북까지 확장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의 위기와 거대 부산의 가능성은 시도별 이동자수 통계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통계를 보

면 서울에서의 전출자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이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천과 경기도, 세종시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수도권이 확장되는 것이다. 즉, 본고의 시각으로 말한다면 이는 거대 서울의 형태가 구축되는 것이다. 반면 부산은 순 이동자 수에서 대구와 2등을 다룬다.²⁸⁾

서울·대전 등의 인구 감소는 이동자가 증가한 인천·경기·세종·충북·충남·강원으로 이동하고, 이는 거대 서울, 수도권의 확장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부산·대구·경북의 감소는 울산·경남·수도권·제주 등의 증가로 나타나는 데, 이러한 것이 커다란 하나의 지역으로 묶여진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의 중심에 부산이 거대 부산전략으로 입지해야 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중국관광 상품에는 북경과 상해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이 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북경과 상해를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급 열차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기술과 인프라의 발전으로 공간의 축약이 일어났기에 가능하다. 어디 이뿐인가 머지않아 북경과 천진이 하나의 거대 메트로폴리탄(Metrolitan)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미 상해는 주변지역과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며 주변 지역의 특징점을 모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거대 부산 전략에 있어 주목되는 점은 첫째, 앞서 살핀 것과 같은 부산의 지정학적·역사적 이점과 특징을 기초로 부산만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해양성, 개방성, 저항성도 부산의 주체성에 맞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주변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를 조화시켜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부산은 상해와 비교해서 기반시설이 취약하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 주변지역의 특색 있고 다양한 고급 인프라와 세계 무역 강국 한국의 제1항만이라는 장점을 살려 새로운 발전모델

28) 2013년에서 2014년까지의 시도별 이동자수 통계청 자료를 보면(통계청 자료, <http://kosis.kr/statisticsList>).

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를 부산의 배후지로 생각해야 한다. 부산은 1995년 3월 1일 기장군을 편입시키고 부산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한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하였다. 부산의 행정구역 확장은 1936년에 1차 행정구역 확장을 시작으로 1942년에 2차, 1963년에 3차, 1978년에 4차, 1989년에 5차, 그리고 1995년 6차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확장의 노력을 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물리적 확장이 아닌, 공감과 상생의 마인드로 주변지역까지 확장하여 화학적 변화를 도모한 대부산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본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부산의 단점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지만 100여 년 전에는 동래부 부산면이었다. 부산이란 지명의 위상이 1세기 사이에 뒤바뀐 것이다. 부산은 동래부에 속하는 일개 면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10년 10월 부산부가 설치되면서 부산이란 이름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거대 부산 전략도 지금은 부산과 주변지역으로 구분되어,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부산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거대 부산 전략으로 힘이 모아진다면, 화이부동(和而不同)속에 서로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가 건설될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경우도 이미 지역을 넘어 탈영토화 하였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하여 문화적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효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며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산에서 진행된 다양한 시도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고 있다. 지역문화는 일반적으로 문화가 갖고 있는 보편성과 지역이 갖고 있는 상대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잘 조화시키는가에 따라 지역문화의 발전이 좌우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거대 부산과 같은 것을 언급하기 전에 부산과 후쿠오카 초광역 경

제권을 형성하자는 얘기도 있었다. 궁극적으로 부산은 주변국과 연계하여 거대 경제권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외국과 관계를 맺기 전에 국내 주변 지역과의 관계 맺음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산은 부산만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이 많다. 주변지역과 힘을 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크고 오래간다 할 수 있다.

둘째, 근친원소(近親遠疎)처럼, 외국 지역과의 관계조성보다 가까운 이웃과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 그러할 때 다양한 국가나 지역과 맺은 관계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웃 북경의 거대 도시 구상이나 거대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해를 추월하는 혁신적 사고의 전환이 없는 이상 부산의 미래는 없다. 지난 과거 부산의 역사에서 근현대 이후 벌어진 지정학적 위치가 초래한 행운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이미 인천과 제주도로 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부산 전략은 부산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산이면서 경상도이고, 부산이면서 한국이며, 부산이면서 세계가 되자는 적극적 측면의 주체적 수용과 창조적 개발 정책이다. 이러할 때 2등 도시, 제2도시라는 숫자 놀이와 이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부산이 될 것이다.

이제 전략적으로 부산은 두 가지 정책을 함께 준비해서 실행해야 한다. 소부산 전략과 대부산 전략이다. 소부산 전략에서는 기존의 전략에 더하여 부산만의 장점과 정체성을 배가시킬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²⁹⁾ 대부산 전략에서는 주변 지역과 아울러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부산의 존재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방안에 따른 전략

29)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가시티가 없다.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4군데 밖에 없다. 베를린의 경우 부산의 인구와 비슷한 339만 명이고 대부분 이보다 적다. 그러나 이들 중소도시는 강력한 개성을 가진 도시들이다. 명확한 콘셉트, 풍부한 상상력, 문화, 친환경성 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재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소도시가 모색할 앞으로의 전략일 것이다.(최재정, 『도시를 읽는 새로운 시선』, 홍시, 2015, 158쪽.)

을 수립하는 것이다.

부산이라는 곳이 토착민보다는 다양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특징처럼 끊임없이 외부의 것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변화 속에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부산의 문화적 DNA를 이제 진정으로 발휘해야한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한다.

V. 나가며

부산의 역사는 다양한 역사적 부침과 지정학적 역할의 경중(輕重) 속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불안하고, 중국은 성장하며, 일본은 오랜 침체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다른 지역은 지자체 이후 저마다 발 빠르게 움직이며 지역의 살길과 미래를 걱정하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과 인천과 경기도는 과거 부산이 가졌던 지정학적·시대적 반사이익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제 부산만의 방법으로 기존과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소부산 전략이 아닌 대부산 전략을 제안했다. 인문학적 발상과 개인 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피상적 논의가 많고, 명확한 자료와 근거는 적다. 하지만 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면서, 기존과 다른 거대 부산의 구상이라는 문제제기 자체가 본 연구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본다.

거대 부산 전략을 주장했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격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거대 부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호응이 절실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문제제기 이후 앞으로 이룰 후속 연구를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

며, 시론 성격의 본고에 가치와 의의를 둔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도시가 주변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더 치열해 질 것이다. 경쟁이 아닌 주변지역과의 협업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산만의 정체성과 이를 아우르는 주체적 자세이다. 주체적 자세를 주체성이라 표현했지만, 지금껏 주체적 자세보다는 지정학적·시대적 조건에 의해 부산의 발전이 좌지우지되었던 것에서 지금 부산에게는 주체적 자세 주체성의 발견과 개발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21세기의 큰 물결로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를 언급한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땅에는 정보화를 통해 대량 정보가 유통되고, 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며, 민주화를 통해 개체의 가치와 개성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것들로 다양한 문화교류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의 양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주체인 부산 자신이다.

주체성의 발견과 발전은 거대 부산 전략과 부합되어 부산 스스로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부산의 이러한 노력과 자세는 부산이 가진 문화적 DNA와 지정학적 장점과 결합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때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문화의 진정한 힘은 확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력에 있는지 모른다. 즉 주변의 흠어진 능력과 힘을 수용하고, 교류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단계는 단순한 통합과 수용을 넘어서 자신의 문화로 창조하는 일이다. 자신의 문화로 창조하는 것은 나와 여기와 지금에서의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편안함을 깨트리고 안주하려는 습성을 타파하고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대 부산 전략은 아직 부족하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덕삼, 『문수창 :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 _____, 「중국 관광객 유치와 DMZ 관광개발에 대한 연구」-수도권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48,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5.
- _____, 「공감과 공유로서의 도시 北京」-天에서 人, 理想에서 現實로의 전환-, 『도시인문학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5.
- _____, 「石林彝族自治縣의 變化 環境과 前望」,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 김덕삼·최원혁, 「제주도 문화의 분석, 확대, 창조에 대한 다각적 고찰」, 『인문연구』 7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김해시·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시아』, 주류성출판사. 2012.
- 김승찬, 「부산지역 민속학의 현황과 미래」, 『한국민족문화』 2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 김영표, 「부산관광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현안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2006.
- 김재송, 「영도구의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대와위 연계」, 『지방포럼』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김창수, 「도시마을 창조전략: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 재생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 한국비교정부학회, 2012.
- 남송우, 『부산지역문화론』, 해성, 2013.
- 대안 사회를 위한 일상생활연구소, 『사건과 기록으로 본 부산의 어제와 오늘』, 2012.
- 부산광역시, 『부산발전 50년 이야기』상·하권, 부산출판사, 2013.
- 송정숙, 「부산의 기억과 로컬리티」- <부산의 인물>과 <부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2.

- 양주영, 이우환, 김기환, 「부산지역 문화시설의 ‘주름’사유 경향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회,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 유영달, 「부산인의 기질을 찾아서」, 『부산학총서 : 부산의 구조변동과 정체성』,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4.
- 이순옥, 「4월 혁명문학과 부산」, 『항도부산』 26,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10.
- 이종수, 「부산 골목문화자산 스토리텔링 마케팅」,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제26회,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11.
- 정경주, 「부산지역 고전문학의 창작 배경에 대하여」, 『석당논총』 5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 정영자, 「세계화와 부산문화의 특성」, 『지역사회』 20, 한국지역사회연구회, 2011.
- 최용성, 「부산 로케이션 영화와 탈식민성의 로컬문화윤리」, 『한국민족문화』 4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 최재정, 『도시를 읽는 새로운 시선』, 홍시, 2015.
- 홍성민, 「문화, 로컬리티, 주체형성」-21세기 인문학의 방향모색-, 『로컬리티 인문학』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통계청 자료(<http://kosis.kr/statisticsList>).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2015.9.30	2015.11.5	2015.11.16

【Abstract】

The study of Large Busan plan

Kim, Dug-sam*

This paper is on the study that analyzed via serendipity Busan culture. We assumed the accidental factors in Busan cultures which evolved Busan could ratify the future development of Busan. To examine this, the study was tried from two major research directions.

One is a structural chance that geopolitical position has brought as a spatial aspect, the other one, as the temporal aspect, is an existential chance that era came calling. In the former case, through narrow and broad meaning of Busan structural chances Busan has from geopolitical position are examined. In the latter case, through the era distinction such as the Japanese invasion, the Korean War, and the age of the industry we examine the existential.

This research showed Busan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Busan called resistance, marine, openness, we saw that he should strengthen the independence. Development of these of subjectivity will contribute to the features and development of Busan), now, and will giv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have a serendipity.

Also, as was seen in geopolitical position, Busan will be brought up the forces that lead to success with the starategy of "large Busan" to cover the Busan and the surrounding area.

* key words : Busan, culture, geopolitics, subjectivity, large Busan

* Dae Jin university